

CEO 동정

직무청령 계약 체결식



강영일 이사장은 2월 26일 수도권본부에서 공단 선임 비상임 이사와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이사장 직무청령 계약'을 체결했다.

CEO 동정

KR 소년단 장학금 수여식



강영일 이사장은 2월 27일 본사 다목적홀에서 철도주변 소외 계층 청소년 120명에게 장학금과 교복 및 학용품을 지급하며 "앞으로도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CEO 동정

수도권본부 건설현장 방문



강영일 이사장은 3월 6일 수도권고속철도 수서역 등 본부내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동결과 융해로 지반 약화가 우려되는 건설 현장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63억원 규모 필리핀 철도 감리사업 수주

- 동남아시아 철도사업 진출 발판 마련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최성권) 해외철도사업처에 따르면 공단이 필리핀 교통통신부(DOTC)가 발주한 63억원 규모의 마닐라 경전철(LRT : Light Rail Transit)-2호선 동부연장선 시공감리사업 국제경쟁입찰에서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필리핀 LRT-2호선의 동부지역 수송량도 증대를 위해 산토란에서 마시낙간 4.2km의 지상철 건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감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공단은 국내 설계업체인 (주)수성엔지니어링 및 필리핀 현지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내 및 중국 철도 감리사업을 수행한 경험, 최고전문가의 투입, 경쟁업체와 차별화된 기술 제안 등으로 기술평가에서 경쟁업체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본부는 이번 필리핀 철도사업 수주를 발판으로 최근 철도, 도로 등 인프라건설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그간 축적한 철도건설의 기술력 및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추가 수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필리핀 LRT-2호선 사업 노선현황

전기·궤도분야 1조3126억원 발주

- 상반기 조기발주 및 중소기업 제품 2331억원 구매로 경제 살리기 앞장서 -

기술본부(본부장 임영택)는 올해 수도권고속철도 전기·궤도공사 등 공사 55건, 용역 65건, 구매 81건 등 총 192건에 1조3126억원 규모의 사업을 공개경쟁입찰로 신규 발주한다.

본부는 이중 111건 8086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고,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제품 17종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 7종 및 중소기업 특화제품 19종 등 2331억원 규모의 제품을 구매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구분	금액(억원)
중소기업직접구매 품목	888
구매조건의 기술개발제품	140
중소기업 특화제품	1,303
합계	2,331

또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를 직접 수행하고 전철전력 및 신호통신 분야에서 직접 감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예산 162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수서~평택 고속철도 4420억원, 성남~여주 등 일반철도 3개 사업 6020억원 수완~인천 광역철도 사업에 688억원, 기존 운행선 개량 및 수탁 사업 등 19개 사업 1998억원이다.

발주사업명	사업비(억원)	발주시기
수도권고속철도 전기공사	4,420	3월~10월
성남~여주 복선전철 전기·궤도공사	3,568	3월~10월
진주~광안 복선전철 전기·궤도공사	1,613	7월~10월
부산~울산 복선전철 전기·궤도공사	839	3월~10월
수원~인천 복선전철 전기·궤도공사	688	3월~10월
개량, 수탁 등 19개 사업 전기·궤도공사	1,998	3월~12월
합계	13,126	

장항선 폐선부지를 탄소 저감형 생태숲으로 조성

- 총남 보령시 대천동 2500㎡ 대상으로 10월 완공 예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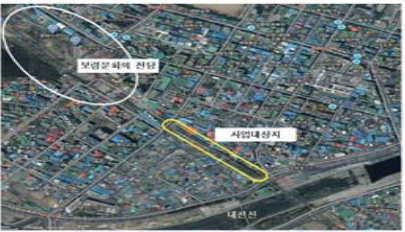
연구원에 따르면 공단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에 소재한 장항선 폐선부지 약 2500㎡를 탄소저감형 생태숲으로 복원할 계획으로, 오는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추진되며(약 4억원), 지역현오 시설로 전략한 폐선부지를 녹색공간 창출, 탄소저감 및 미기후 개선에 초점을 맞춰 도시 내 생태숲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장항선 이설에 따른 폐선부지가 마을 사이의 나대지로 방치됨에 따라 간신평지재 적재, 불법 쓰레기 투기 등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공단은 사업 초기부터 보령시의 '보령문화의 전당' 사업(舊 대천역 부지)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시민을 위한 생태학습 및 문화시설 공간으로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령시 폐해동부지 탄소저감 생태숲 조성사업 대상지)



창립 10주년 기념 전국민 8행시 공모전 개최

- 3월 18일까지 공단의 정체성 및 역할 주제로 시행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유)는 공단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 모두가 참여 가능한 기념 8행시(한국철도시설공단) 공모전 이벤트를 3월 18일까지 실시하며, 공모전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r.or.kr), 블로그(http://blog.naver.com/kr_blog), 트위터(https://twitter.com/KR_network),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Rrway)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2004년 발족 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관리를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단이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여 경영환경 이슈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행되며, 철도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정체성·역할 및 책임의식·사명감을 주제로 시행한다.

참여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에서 응모 양식을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메일(shbaek@kr.or.kr)로 제출하면, 우수작 50편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제출된 작품은 공단의 홍보 현수막 또는 각종 슬로건 문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 결과 발표는 3월 24일 공단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시행된다.

올해 철도건설 용지보상비 2543억원 집행

- 상반기 1404억원 조기 집행으로 경기 활성화 기여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최성권)는 올해 철도건설사업비 7조2000억원 중 용지보상비로 2543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해 1404억원(55.2%)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본부는 올해 용지보상을 시행하는 25개 사업 중 ▲부산~마산 복선전철 등 5개 신규사업에 287억원을 집행하고, ▲현재 공사 중인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20개 사업에는 8707필지/4531천㎡에 2256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필요 용지의 95.1%까지 매수할 계획이다.

한편, 2014년 말 완공예정인 호남고속철도는 용지매수가 대부분 완료되어 전 공구에서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 중이며, 원주~강릉 복선전철화 사업의 경우 2013년도 말까지 전체 용지의 53%를 매수 완료하여 2017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부는 보상절차 등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와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공단 홈페이지의 KR토지보상안내(FAQ)에 잔여 매수 세부기준 등을 추가로 게재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